



안전,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지만 꼭 들려줘야 하는 소리 바로 생명을 지키는 소리입니다.

쌍용동해산기 안전실장 **김진환**

안전관리의 기본은 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 있어서 커다란 시련을 안겨줍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던 커다란 느티나무였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가족에게 짐이 되어 힘들어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며,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재 | 임재근 기자

마흔 살에 안전관리자가 되다

김진환 안전관리자는 강원도 태백에서 태백기계공고 전기과를 졸업하고 강원산업에서 20여 년 가까이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다가 마흔 살이 되던 1993년 이곳 쌍용동해산기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하게 되었다. 평소 전기에 관한 일을 하면서도 늘 안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독학으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안전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풍부한 실무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를 펼쳐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평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 오랜 기간 안전분야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국영기업체 및 사기업 등에서 특성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무늬만 안전관리자에서 진정한 안전관리자로

처음 안전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전기와 안전관련 자격 선임이 되어 있다는 것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회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실무 쪽 경험도 많고, 산업안전기사도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큰 보탬이 되고 있지 않은가?, 안전 업무도 그저 남들과 똑같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물론 처음 접하는 일이다보니 업무나 근로자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 고항사람이니 이해해 주겠거니 했다. 당시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인식 또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수준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직과 업무를 겨우 맞추어 가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일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일이 발생했다. 다음 아닌



김진환 안전실장, 그의 부인 박정자씨

중대재해 사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선배 근로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안전관리자로 장례를 함께 치루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족과 앞으로 그 가족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한없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다. 사고로부터 안전을 배운 본인 자신이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목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안전 업무에 매진하게 되었다.

17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안전과 함께 걸어온 17년, 이곳 쌍용동해산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 집에 손가락이 몇 개가 있

는지도 알 정도로 세월은 그렇게 모두를 가족으로 만들었다. 안전과 보건을 함께 담당하는 요즘, 그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관리 검사에서 혈압이나 당뇨, 간수치 등이 높게 나올 때면 근로자와 상담하고 그 가족에게도 알려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다그치기도 한다. 그 동안 안전업무를 해 오면서 보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그렇듯 재해율 감소, 무사고 달성에 있다. 과거 빈번히 발생하던 사고는 2003년 모두 해보자는 열의 속에 지금까지 무재해 7배수를 달성하고 있다. 기록이란 것이 언젠가는 깨어지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기록만큼 우리 근로자가 건강함을 의미하고, 그 가족이 아무 탈 없이 행복함을 의미하고, 회사 또한 안전과 번영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그 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한다.

자신의 안전은 기본이요, 이제 동료의 안전까지 책임 질 때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사고로 인해 가족이 죽는 것과 심하게는 가족 해체까지 보아왔던 터라 그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작업의 경우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가 취해진 후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 한다. 이제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수준으로 안전의식이 높아져 있기는 하지만 휴먼에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의 안전도 내가 지킨다는 진보적 사고로 서로의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작업이 조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신뢰가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도 서로 서로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으므로 나의 안전은 기본이요, 동료의 안전도 돌 볼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말한다.

남은여생, 안전을 전파하는 전도사로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그는 십 수 년부터 안전관리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내 안전교육은 물론 외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안전 전도사로 안전의 중요성을 강의함으로써 지역의 안전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안전이란 꼭 기업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탈피해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풍부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80여 권의 교재를 집필하였다. 앞으로 그 동안 교재의 내용을 좀 더 다듬어 20여 권으로 교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정년을 맞이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찾아가겠다는 그의 마음에서 진정, 안전을 사랑하는 장인의 모습이 엿보였다. 안전 전도사로 그의 열정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전달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

